

- 주요 뉴스: OECD, 세계경제는 안정적 회복 유지 인플레이션과 국가 간 불균형은 위험 요인
 - 미국 질병대책센터(CDC),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 환자 발생
 - 연준 의장,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
 - 미국 11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61.1로 전월(60.8) 대비 상승. 양호한 수요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자국 내 첫 오미크론 확진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보합[+0.04%],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 지수는 저가매수와 기술 관련주 강세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11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0.4%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77.5원, -2.2원) 0.2% 하락, 한국 CDS 하락

		12/1일	11/30일	전일대비			12/1일	11/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13.0	4,567.0	-1.18%	국채 금리 10y	미국	1.40%	1.44%	-4bp
	유럽	470.86	462.96	1.71%		독일	-0.34%	-0.35%	1bp
	중국	3,576.9	3,563.9	0.36%	CDS 5y	한국	20bp	21bp	-1bp
	일본	27,936	27,822	0.41%		중국	54bp	54bp	0bp
	한국	2,899.7	2,839.0	2.14%	위험 지표	EMBI+	-	414	-
환율	달러지수	96.04	95.99	0.04%		VIX	31.12	27.19	14.45%
	유로화	1.1320	1.1338	-0.16%		WTI유	65.57	66.18	-0.92%
	엔화	112.78	113.17	0.35%	원자재	구리	422.5	427.8	-1.25%
	위안화	6.3681	6.3644	-0.06%		금	1,781.7	1,774.5	0.41%
	원화	1,179.2	1,187.9	0.7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OECD, 세계경제는 안정적 회복 유지. 인플레이션과 국가 간 불균형은 위험 요인

- 세계경제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2023년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다만 저소득 국가는 저조한 접종률 등으로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지역별로 G20의 2021,22년 성장률 전망은(5.6%, 4.5%) 9월 전망치(5.7%, 4.5%) 대비 거의 동일했고, 미국의 이번 전망치는(5.6%, 3.7%) 이전에(6.0%, 3.9%) 비해 하향. 중국도 9월 전망치(8.5%, 5.8%) 보다 둔화될(8.1%, 5.1%) 것으로 예상
- 한편 2022년 G20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상향(3.9%→4.4%), 특히 미국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3.1%→4.4%). 오미크론이 향후 공급 차질과 비용증가 문제를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 OECD의 로렌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과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통화긴축의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질병대책센터(CDC),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 환자 발생

- CDC에 따르면, 감염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후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증상은 가벼운 상황. 감염자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

■ 연준 의장,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

-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예상하나,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의견 피력. 다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

■ 미국 재무장관,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

- 옐런 장관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했지만,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진단.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상품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이라고 지적

■ 미국 지역연은경제보고(베이지북), 완만한 경기회복 속에 물가상승 속도는 빠른 편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노동공급 부족 등도 비용증가로 연결.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 미국 11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61.1로 전월(60.8) 대비 상승. 양호한 수요 등에 기인

- 이번 결과는 예상치(61.0) 상회. 하위 구성지수들 가운데 신규수주, 고용 등이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 하지만 공급차질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특히 원자재 부족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문제로 거론

■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49.9로 전월(50.6) 대비 하락. 수요 둔화 등이 원인

- 수요 둔화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조업 활동을 저해.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의 Wang Zhe는 최근 공급 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나 수요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영란은행 총재, 코로나 19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강한 편

- 베일리 총재는 다만 작년 팬데믹이 시작된 시기와 비교하면 약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은 크다고 언급. 또한 공급 차질 등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호주 3/4분기 성장률, 전기비 -1.9%로 예상치(-2.7%) 상회. 부양책 효과 등에 기인

-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으로 전기(0.7%) 대비 부진.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 등으로 가계소비 감소가 소폭에 그치면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 시장에서는 4/4분기 성장률 반등을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만명, 전월비): 53.4, 10월(57.0), 예상치(52.5)
- 미국 10월 건설지출(전월비): 0.2%, 9월(-0.1%), 예상치(0.4%)
- 독일 10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2.9%, 9월(-0.6%), 예상치(-2.0%)

■ 주요 경제 이벤트(12/2 현지시각 기준)

- ECB 파네타 위원 강연, 미국 1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강한 물가상승 압력, '일시적' 표현 포기 불구 지속 가능성은 낮은 편 - Financial Times**
(Transitioning away from 'transitory' inflation)
 - 연준 의장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
 - 최근 OECD는 미국의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조정(3.1→4.4%). 하지만 이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6.2%) 대비 낮은 수준. 아울러 임금인상 등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파월의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 발언은 현명한 대응
 -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시, 공급차질 우려는 있으나 성장둔화로 상품 수요에도 타격이 예상. 이에 연준의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지만, 인플레이션 논란은 지속될 전망
- **미국 대형은행의 대출 유연성, 오미크론 영향으로 약화될 우려 - WSJ**
(As Banks Face Omicron Risk, Their Size Could Become a Handicap)
 - 미국 은행산업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도 성장 복원력을 유지. 하지만 오미크론 위험이 대두되면서, 불확실성 증대와 은행규제 여건의 변화 가운데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 대형은행은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자기자본 관련 기준이 적용
 -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추가적인 대출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부재. Credit Suisse의 분석에 따르면 JP 모건 등 금융산업의 안정에 중요한 글로벌 주요 은행의 경우 변동성을 완충시킬 수 있는 초과 자본이 필요할 전망
- **각국 중앙은행, 불확실한 오미크론보다 확실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 과제 - 블룸버그**
(Omicron May Be Uncertain, But Inflation Is a Sure Thing)
- **최근 공급 차질 완화,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 WSJ**
(Manufacturers' Reprieve Could Be Ruined by Omicron—or Not)
- **미국 연준 12월 통화정책, 자산매입 축소 등의 속도를 높일 필요 - 블룸버그**
(The Federal Reserve Needs to Act on Powell's Word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